

노래·몸짓으로 갈망하는 대동세상

‘무등산 시인’ 범대순 생애와 시세계

오늘 동구 미로센터서 10주기 추모식...원탁시회·포럼 등 행사 다채



지난 18일 ACC 열린마당에서 펼쳐진 오월극 '오! 금남식당' 공연 장면. 극중 '조미료'와 '심심해' 세프는 두 팀으로 나눠 '금남 식당'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 요리 경연을 펼친다.

매일 5월 18일 오후 5시 18분이면 민주광장에서 이벤트가 펼쳐진다. 민주광장 시계탑이 5시 18분을 가리키자 어김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왔다.

5월 상흔을 담은 민중가요를 들으며 어떤 이는 자리에 멈춰 묵념했고, 어떤 이는 허공을 울려다봤다. 44년이 흘렀음에도 5월 광주의 하늘은 푸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끝을 신호탄 삼아 막을 올린 오월극 '오! 금남 식당'. 오월 레퍼토리극이 함의하는 역사적 무게감 때문이었는지 관객들이 발걸음을 멈춰 공연장에 모여 들었다. 작품은 지역 극단 토박이가 2016년 민들레소극장에서 초연한 이래 200여 회 상연했다. 금남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금남로 일원에서 관람한다는 점은 그 자체로 몰입감을 더했다.

1부는 금남관의 주인 '오금남' (박경단 분)의 후계자를 선발하기 위해 요리 경연을 펼치는 대목. 역동적인 가무와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다. 후계자 '심심해' (임해정)와 '조미료' (김정훈)는 각각 보조제프 '안무거' (이종경), '다나' (고영옥)와 함께 금남관의 새 주인이 되려 요리 경연에 참가한다.

"요즘 광주 한 끼 어디서 때우나, 상무지구 사람 많아 금남로 뭔가 특별해".

가수 UV (유세운·유지)의 노래 '이태원 프리덤'을 개사한 '금남관 프리덤'에 맞춰 경연 축하공

극단 토박이 오월극 '오! 금남 식당'

요리 경연 모티브로 '그 날' 그려

1~3부 과거 통한 연대 가치 상기 ACC, 민주 인권 평화 마당극제 25일 '천명'·26일 '바다 건너...'

연을 펼치는 대목에서는 관객들도 따라 어깨를 들썩였다. 배우들은 커다란 무를 다듬으며 '판문점'과 '지구'를 만들었는데 대동 세상과 평화의 의미를 상징하는 듯 했다.

관객들은 후계자를 응원하는 두 팀으로 나눠 세프 '안무거'와 '심심해'의 이름을 연호했다. 안무거 세프는 기자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물었는데 적당히 '짬뽕'이라고 답하자 이내 팀을 응원하는 구호가 됐다. 관객 참여의 묘다

한편 이번 공연은 ACC가 '2024 오월 문화 주간' 일환으로 마련한 '민주 인권 평화 마당극제' 개막 작품으로 마련됐다. 같은 시간, 장소에서 정음 시립극단은 '천명' (25일)을, 놀이패 한라산은 '바다 건너 내고향' (26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ACC 교류홍보과 박명현은 "사회역사의 변곡점이 된 5·18을 마당극 형태로 재현한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며 "이 밖에도 제주 4·3사건, 동학농민운동, 부마항쟁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도 예정돼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으로 숨어들었고, 군봉을 든 계엄군은 식당 안으로 난입해 '투사회보'를 증거로 오금남 할머니에게 폭행을 가했다. 관객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계엄군 역할의 배우를 응시했다.

대동 세상을 희화했던 '광주 정신'이 '주먹밥'을 매개로 관객들에게 전달된 3부도 볼거렸다. 금남 식당의 진정한 안주인은 역사 속 폭력과 불의에 저항해 온 광주 시민 모두라는 의미가 환기됐다.

작품은 한 시간에 불과한 짧은 러닝타임에도 요리 경연을 펼치는 1부, 광주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2부, 주먹밥의 의미를 전하는 3부 등으로 짜임새 있게 풀어냈다. '가-서-결'이 맞물린 구조를 매개로 '오! 금남 식당'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ACC가 '2024 오월 문화 주간' 일환으로 마련한 '민주 인권 평화 마당극제' 개막 작품으로 마련됐다. 같은 시간, 장소에서 정음 시립극단은 '천명' (25일)을, 놀이패 한라산은 '바다 건너 내고향' (26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ACC 교류홍보과 박명현은 "사회역사의 변곡점이 된 5·18을 마당극 형태로 재현한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며 "이 밖에도 제주 4·3사건, 동학농민운동, 부마항쟁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도 예정돼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인의 10주기를 맞아 생애와 시세계를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24일 오후 3시 동구 미로센터 미로극장에서 열리는 추모식에는 고인이 활동했던 단체 문인들과 학계, 독자, 유족 등이 참여한다. 광주전남작가회의를 비롯해 원탁시회, 출판사 문학들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이날 행사에서는 심포지엄, 기념사업회 출범식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1930년 광주시 북구 효령동 신촌에서 태어난 범 시인은 광주 서중과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테니스 대학 연구 교수, 영국 옥스퍼드 대학, 런던 대학, 미국 아이오와 대학,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연구했다. 광주제일고, 목포교육대학을 거쳐 전남대 영문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금성 범씨 대중회 회장을 지냈다.

그의 창작 및 문단 활동의 스펙트럼은 사뭇 넓다. 1958년 조지훈 시인의 추천으로 문단에 나온 이래 '흑인고수 루이의 북', '기승전결', '백지시',



범대순 시인



무등산에 있는 범대순 시인의 작품이 새겨진 '무등산송' 시비



범대순 시문학관

"우리가 무등산이 좋은 것은/ 눈을 감아도 그 등 서남북/ 서서 바라보는 자리가 화순이듯 담양이듯 / 광주 어디 서서 보아도 크고 넉넉함이어// 우리가 무등산이 좋은 것은/ 춘하추동 계절 없이 넘어선/ 언제나 붉은빛이 푸른빛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만 자색의 꿈..."

생전에 '무등산 시인'으로 불렸던 범대순 시인 (1930-2014)은 무등산을 1100여회를 올랐다. "나의 산행은 잃어버린 무등산의 원시를 찾아가는 고산고수(高山苦水)의 길이다"라고 말할 만큼 무등산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

무등산은 곧 광주를 상징한다. 광주는 곧 무등산이기도 하다. 무등산을 1100여회, 서석대를 160회를 오르내렸다는 것은 광주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요산요수'가 아닌 '고산고수'로 바라본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성찰, 궁극적 세계에 대한 열망 등이 남달랐음을 보여준다.

올해는 범대순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만 10년이 되는 해다. 무등산을 모티브로 광주에 대한 사랑,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사유를 독창적 시 세계로 펼쳐냈던 시인은 아마도 무등산을 비추는 별이 되었는지 모른다.

고인의 10주기를 맞아 생애와 시세계를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24일 오후 3시 동구 미로센터 미로극장에서 열리는 추모식에는 고인이 활동했던 단체 문인들과 학계, 독자, 유족 등이 참여한다. 광주전남작가회의를 비롯해 원탁시회, 출판사 문학들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이날 행사에서는 심포지엄, 기념사업회 출범식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1930년 광주시 북구 효령동 신촌에서 태어난 범 시인은 문학에 대한 해박한 이론은 물론 창작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깊고 순수했다"며 "선생이 남긴 무등산 시편들은 광주와 무등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귀한 문학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김준태 시인은 "범 시인은 서구적인 양식, 동양적인 사유, 감성적인 사풍 등 어느 한가지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시적 세계가 넓고 깊었다"며 "때로는 해맑은 소년 같고, 때로는 현자 같은 인자한 모습으로 후배들을 격려해주신 모습이 어찌 일처럼 눈에 선하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룹 NCT 127, 싱글 '컬러스'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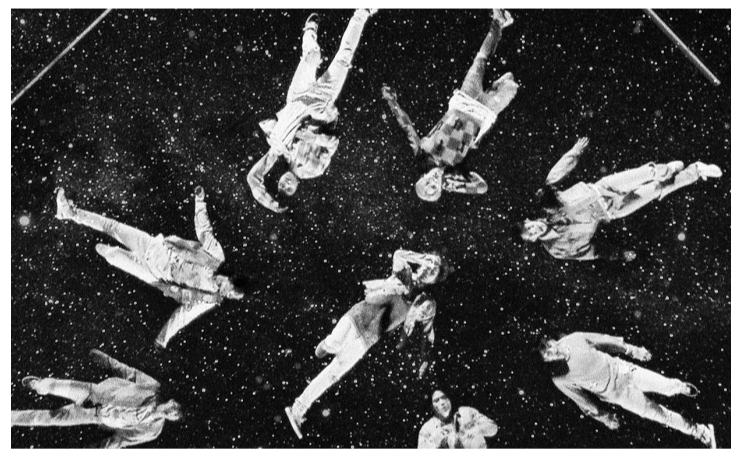
그룹 NCT 127(사진)이 23일 각종 글로벌 음악 사이트를 통해 일본 새 싱글 '컬러스' (Colors)를 깜짝 발표했다

'컬러스'는 NCT 127이 일본 데뷔 6주년을 맞아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처럼 준비한 노래다.

몽환적인 기타 선율과 신시사이저 사운드와 멤버들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조화를 이룬 알앤비(R&B) 곡이다.

NCT 127은 지난 2018년 5월 첫 미니앨범 '체인' (Chain)으로 일본에서 정식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다. 멤버들은 올해 3분기 나을 정규 6집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대연건설

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인마이자,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석당화랑

동구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고서화·우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면쟁이

동구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동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임,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영,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파크랜드 광주 세정점

광주시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글다리쪽)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굽깔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광주세정점

광주시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멋진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월청담빌딩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도명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성, 출생,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光州日報